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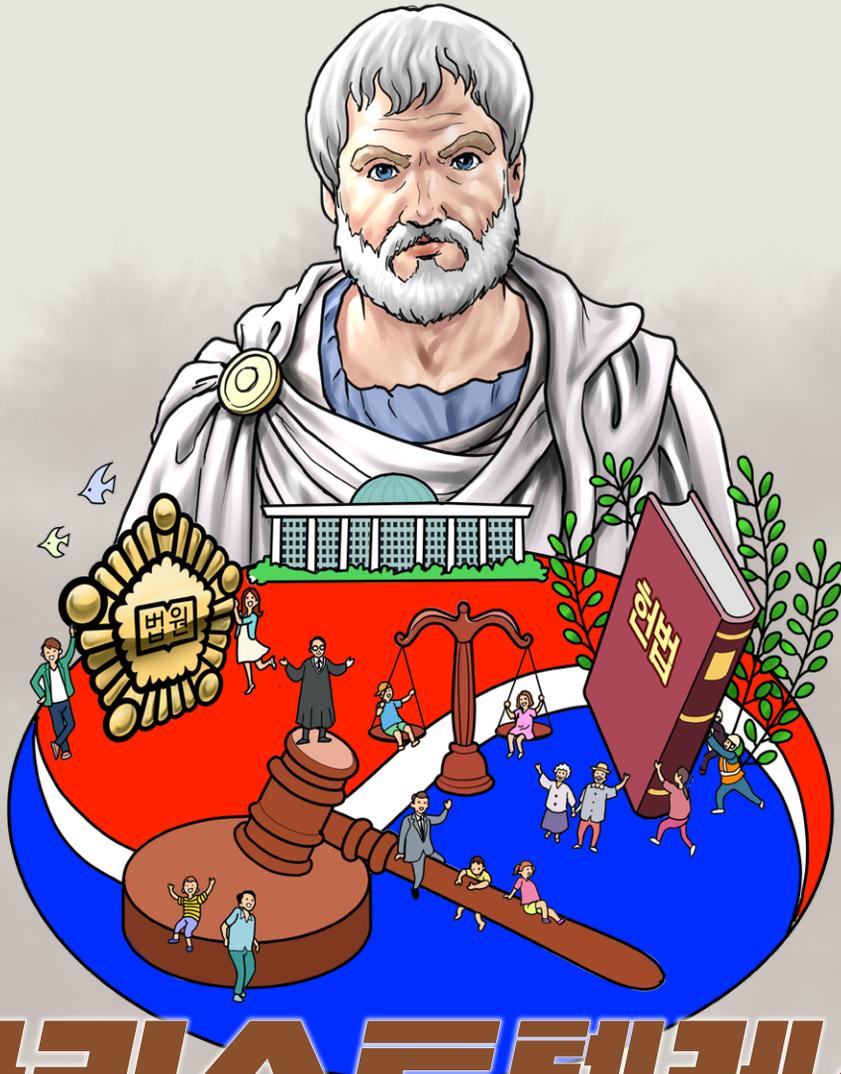
사학연금

Teacher's pension magazine

07

Vol. 440

2023.July



아리스토텔레스

사학연금이 만드는 매거진

사학연금



표지이야기

7월은 소중한 우리 법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제한절이 있는 달입니다. 헌법 덕분에 우리는 평화로운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학연금 7월호에서는 헌법의 진정한 의미와 소중함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이야기로 꾸몄습니다.

CONTENTS



발행인 주명현
발행일 2023년 7월 1일(비매품)
발행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문의 061)338-0363
주소 (58326) 전남 나주시 문화로 245(빛가람동)
대표전화 061)338-0000
등록번호 나주 라 00010
등록일자 2006년 1월 12일
기획·디자인 승일미디어그룹(주)
연금업무 상담 1588-4110(유료)

—	공감
04	명언 법이란 무엇일까. 아리스토텔레스의 대답은?
06	만남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는 헌법의 소중함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
10	여행 우리나라 의회민주주의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담고 있는 국회박물관
14	짓다 - 아이들은 내게 -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나에게 - 붉은 장미
—	소통
18	건강 식 칼칼한 밥도둑 갈치조림
20	인생 책 플랫폼 경제는 공정할 수 있는가?
22	지구 인 올바른 지구를 위한 올바른 재활용 방법
26	경제 톨 내가 좋아서 사는 건데 뭐가 나빠? 디깅 소비 알아보기!
28	요즘 말 매일 밤 다짐하는 '갓생' 살기
—	알림
30	연금 소식 - 연금소득 과세제도 및 소득·세액공제 신고 안내
32	독자 마당
33	공단 소식 - 독자설문엽서 - 「사학연금지」제작방향 설문조사
35	제휴 복지



법이란 무엇일까. 아리스토텔레스의 대답은?

현인을 꼽으라고 한다면 소크라테스, 플라톤과 함께 아리스토텔레스가 거론된다. 이들의 영향력은 200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 중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서양 학문의 아버지라는 별명까지 가지고 있다. 그러한 그의 명성에 걸맞게 그는 논리학, 형이상학, 심리학, 윤리학, 정치학, 미학 등 다양한 분야에 주목할 만한 업적을 남겼다. 그는 특히 법에 관심이 많아 법에 관해 많은 저술과 명언을 남겼다. 그의 말과 글을 통해 법이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글 송한샘

법의 기초를 마련한 아리스토텔레스

우리는 모두 법체계 속에서 살아간다. 법은 우리 사회의 근간이다. 많은 철학자, 법학자가 법이 사회를 지탱해줄 수 있도록 법에 관한 사상과 체계를 정리하고 발전시켜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법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도 그중 한 명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법을 공부하며 <니코마코스 윤리학>, <정치학> 등의 저술을 남겼다. 그의 저술은 후에 많은 학자에게 전해졌고 현대의 법사상, 법체계까지도 그 영향력이 미쳤다. 그리고 그의 사상은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교훈과 지혜를 주고 있다.





“인간은 사회적, 정치적 동물이다.”

우리가 살아갈 때 왜 법이 필요할까. 그것은 바로 인간이 사회적, 정치적 동물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결코 홀로 살 수 없다. 인간은 가정이나 국가와 같은 집단 속에서 살아간다. 개인이 모여 국가를 이룰 때, 정치적 공동체를 보호하고 통제하기 위해 법은 제정된다. 법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우리는 생명의 안전은 물론 국가로부터 복지혜택을 제공받으며 편안한 삶을 이어간다. 그러나 때로는 공공질서를 위해 국가로부터 그 권리를 침해당하기도 한다. 만약 법이 없다면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

“만민이 법 앞에 평등한 국가만이 안정된 국가이다.”

교내 학급에서 규칙을 만들기 위해선 학급 구성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 규칙의 실효성과 정당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국가 역시 마찬가지다. 법을 제정할 때 구성원들의 동의와 승인을 받아 특정 개인이 아닌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평등한 법을 만든다.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법은 모두에게 평등해야 함을 주장했고, 이를 잘 제정하고 지키는 국가가 안정된 국가라고 여겼다.

“통치자는 개인의 욕심이나 마음이 아닌 법의 지배를 통해 통치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통치자란 ‘인간의 지배’ 방식이 아닌 ‘법의 지배’ 방식으로 구성원을 지배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개인의 욕심과 생각으로 집단을 장악하고 조정하는 게 아닌, 정해진 규칙과 규율에 맞춰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상식선에선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살았던 시대에선 낯선 통치 개념이었다. 그 당시 통치자들은 법보단 개인의 욕심과 생각으로 통제했기 때문. 이를 생각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 감각과 사상이 얼마나 세련됐는지 알 수 있다. [tip](#)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는 헌법의 소중함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

글 정미래 사진 박형준



장영수 교수와의 만남 인터뷰 영상은
하단 QR코드에서 확인하세요.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 교수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장
前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前 국회개헌특위 및 정개특위 자문위원



법치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이 자신의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무엇보다도 ‘헌법’이다. 그리고 나라를 잃었던 우리 민족이 새로운 토대 위에서 법을 세운 날이 바로 제헌절이다.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우리 국민을 지켜주는 헌법의 의미에 대해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를 만나 이야기 나눠보았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먼저 교수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헌법을 강의하고 있는 장영수입니다. 1994년 교수로 임용된 이후 계속 고려대학교에 재직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국회 개헌특위 및 정개특위 자문위원 등을 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7월 17일은 제헌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헌절은 ‘헌법을 공포한 날’로만 알고 계신데,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인지 설명해주세요.

현대 국가에서는 헌법이 곧 국가의 주권성을 상징합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우리 헌법이 없었고, 해방된 이후에 비로소 헌법을 제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해방 직후에 바로 헌법을 제정한 것이 아니라 3년간의 미군정을 거친 이후 1948년에 비로소 헌법을 제정하고, 독립된 주권국가로 국제사회에서 공인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헌법은 한 나라의 최고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최고법이기도 하지만, 보다 기본적으로 국가 법질서 전체의 무게 중심 역할을 하는 법이 헌법이기 때문입니다. 현대 국가에서 수많은 법률들과 명령, 규칙, 조례 등이 제정되어 시행되는데, 법률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조차 모든 법률의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로 인하여 규범의 충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지요.

이런 경우에 법질서의 통일성을 위해 기준이 되는 것이 최고법인 헌법입니다. 헌법에 비추어서 어떤 법률 또는 명령·규칙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위헌법률심판제도, 위헌 명령·규칙심사제도 등이 인정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평소 많은 국민이 헌법의 보호 하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에 대한 의미는 잘 모른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의미에 대해 들려주세요.

헌법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헌법의 이념과 원리 등을 규정한 총론(제1장 총강) 부분이고, 둘째는 국민의 인권을 규정한 기본권(제2장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구성과 권한 등을 규정한 국가조직 부분(제3장~제7장)입니다. 그밖에 경제질서와 지방자치, 헌법개정 등에 규정들이 있습니다.



헌법을 생각할 때, 사람마다 어느 쪽을 강조하는지가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국민의 기본권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어떤 분들은 헌법의 중심은 역시 권력구조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기본권과 국가조직이 구분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되기 위해서도 제왕적 대통령 문제를 포함한 국가권력이 제대로 통제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기본권 규정을 잘 다듬어도 국가권력이 오남용되는 것을 막지 못하면, 결국 인권보장이 제대로 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개헌 논의에서도 기본권의 중요성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전체로서의 헌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국가권력의 오남용을 제대로 통제하고, 그러면서도 국가기능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헌법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는 아직도 개발독재의 유산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1960~70년대의 개발독재를 통해 압축성장이라 일컬어지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룬 것이 맞고, 이를 제3세계 국가들이 배우려고 한다는 것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효과가 있던 시스템이라

고 해서 21세기 대한민국에도 잘 맞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당시에는 인재도, 자본도 귀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을 청와대에 모아 놓고 이들에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했으며, 부족한 자본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의 논리에 따라 재벌을 육성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나름의 성공을 거둔 것이지요. 하지만 인재가 많아지고, 자본도 여유가 생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개발독재 시스템은 구시대의 유물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헌법의 의미에 대해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헌법은 독립된 주권국가의 구성을 향한 우리 선조들의 열망을 담은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공인을 받지 못한, 그래서 해방 이후에는 개인 자격으로 귀국해야 했던 대한민국임시정부가 1919년 4월 11일 구성 당시에 임시정부헌법부터 만들었던 것이 왜 그러했습니까. 헌법은 독립된 주권국가의 상

징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헌법은 독재와 싸워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성장시킨 국민들의 피와 땀의 산물입니다. 1960년 4·19혁명이 그러했고, 1987년 6월 민주혁명 또한 그렇습니다. 그 결과로 오늘의 헌법과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셋째, 헌법은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한 초석입니다. 헌법의 틀 안에서 모든 정치과정이 이루어지며, 정치과정을 통해 국민생활의 다양한 문제들이 조율·조정됩니다. 그러므로 헌법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고, 나라가 바르게 되어야 국민의 삶이 평안해질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에는 다양한 조문이 있는데요. 그중 교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조문이나 국민이 기억했으면 하는 조문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생각할 것입니다. 과거 촛불집회 당시에도 이를 구호로 한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저는 그보다는 제1조 제2항을 더 의미 있는 것으로 봅니다. 제1조 제1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상징을 강조했다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제1조 제2항은 민주주의의 본질을 더 잘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조항을 국민들이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주권자인 국민이 깨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주권자로서 자각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권자로서 대접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과거의 3·15부정선거 같은 일들이 계속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국민 스스로가 주권자로서 자각했을 때,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학연금>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요순시절을 가리켜 왕의 존재 자체를 백성들이 알 필요조차 없는 것이 태평성대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 시절에는 맞는 이야기였을지 모르지만, 현대 민주국가에는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 대표자를 뽑아놓고,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을 맡겨버리고 잊어버리는 국민은 주권자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법학에서는 흔히 “권리 위에 누워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을 합니다. 자기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면 소멸시효 등에 의해 권리를 잃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점은 국민의 주권에도 적용됩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주권의 행사를 게을리 하면 주권자로 대접받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정치과정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즘 시청자 주권이니, 소비자 주권이니 하는 말들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연금가입자 주권도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fip](#)



우리나라 의회민주주의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담고 있는 국회박물관

대한민국임시의정원 개원 103주년 기념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국회박물관 개관

2022. 4. 11.



우리는 모두 의회민주주의라는 제도 속에서 살고 있다. 의회민주주의란 국민들이 대표를 선출하여 간접 통치하는 제도다. 여기 의회민주주의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알 수 있는 곳을 소개한다. 바로 국회 박물관이다. 국회박물관은 2022년 개편을 통해 복합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여름철 나들이를 떠나기에도 좋고 온 가족이 의회민주주의에 대해 즐겁게 체험할 수도 있는 곳이다.

글 송한샘



1전시실 / 우리나라 의회민주주의의 씨앗, 임시의정원

1전시실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의회인 임시의정원의 활동이 상세하게 전시되어 있다. 대한민국임시헌장을 비롯해 대한민국임시의정원 기사록,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기록한 도예실기 등 역사적인 기념물을 직접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 독립에 앞장선 독립운동가들과 그들 가족의 삶을 알아볼 수도 있다.



3.1운동 이후 독립운동을 조직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임시정부 수립이 당면과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국내의 독립운동가들은 1919년 상하이에서 3.1운동의 이념과 민족자주정신을 이어받아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을 구성했다. 임시의정원 제1회 회의에서는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민주공화제란 이념이 결정됐다.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인 대한민국임시헌장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으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임시의정원은 비상시국임에도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활동을 이어나갔다. 1940년 임시정부는 충칭에 청사를 마련했다. 충칭은 독립을 위한 마지막 결전의 공간이었다.

2전시실 / 의회민주주의가 싹트다, 제헌국회~12대 국회

2전시실에는 제헌국회부터 12대 국회까지의 기록들이 전시되어 있다.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를 비롯하여 이승만 선거 홍보물, 헌법개정안 게시, 유신정우회 기념패, 한국국민당 창당선언문과 같이 역사의 굵직한 사건들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제헌국회는 외부 세력의 개입과 국내 정치 세력 간 갈등 등 어려운 상황에도 2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임기 동안



안 건국과 정부 수립에 필요한 여러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2대 국회는 제헌국회에서 제정한 국회의원선거법에 따라 실시된 최초의 선거에 의해 구성되었다.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국회는 전쟁 수행, 치안 유지, 국민 보호 등을 위한 입법 및 예산 조치에 힘썼다. 4대 국회는 의회의 다수 의석 정당이 행정부 구성권을 가지며 의회에 책임을 지우는 내각제 개헌을 단행했다. 5대 국회에서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내각책임제가 시행되어 국회의 역할과 비중이 높아졌다. 10대 국회에서는 유신헌법을 개정하고자 했으며, 대통령 긴급조치9호를 만장일치로 해제시켰다.

3전시실 / 의회민주주의가 피어나다, 13대~21대 국회

3전시실은 오늘날까지 국회가 민주주의를 위해 달려온 발자취를 기록해놓았다. 국정감사 선서서, 본회의장 전자버튼식 투표기, 서울 G20 국회의장회의 배지 등을 볼 수 있다. 국회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고 또 어떤 성과를 냈는지 알 수 있다.

국민의 열망과 국회의 노력으로 1987년 제9차 헌법 개





정이 이뤄졌다. 이 개정으로 인해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었고, 국회의 역할과 권한이 커졌다. 이로 인해 권위주의적인 정부 형태가 민주화되었으며 민주주의의 제도가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었다. 13대 국회는 현재 까지 지속되고 있는 제6공화국의 국회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기도 했다. 15대 국회는 1994년 공포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실시되었다. 17대 국회는 국회의원 선거사상 처음으로 정당별 비례대표제를 채택했다. 20대 국회는 국회의원 선거 처음으로 사전투표가 도입되기도 했다. 1987년 이후 국회가 명실상부한 입법부로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면서 꾸준히 의회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것이다.

4전시실, 어린이박물관 / 의회민주주의가 만개하길 바라면서

4전시실은 역대 국회의장의 발언과 활동 등을 볼 수 있다.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국회의 대표이며 대통령, 대법원장과 함께 삼권분립의 한 축을 담당한다. 또 국민의 대표가 모여 구성된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회의를 진행한다. 역대 국회의장의 발언을 통해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어디까지 걸어왔고, 또 어디를 향해 걸어갈 것인지 가늠할

수 있다.

국회박물관에는 어린이박물관이 있어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도 있다. 어린이들은 장차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미래이자 희망이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선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법의식과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이곳은 아이들이 놀면서 배울 수 있도록 하나의 놀이터처럼 꾸며졌다. 놀이터에선 아이들이 무엇을 하고 놀지 자유롭게 얘기하고 의견을 모아 공평하고 사이 좋게 논다. 국회가 지향하는 모습과 같다. 어린이들은 우리나라의 법과 민주주의에 대해 배우고, 어른들은 우리나라 법 제도에 관해 다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삶을 지탱해주는 의회민주주의. 국회박물관에서 우리나라의 근간이기도 한 의회민주주의에 대해 소중함을 다시 깨닫고, 주권과 권리를 가진 국민으로서의 책임감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다. 📺



국회박물관

문의 02-6788-3664

관람 시간 평일 10:00~18:00(입장 마감 17:00)
토요일 10:00~13:00(입장 마감 12:00)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07233

홈페이지 <https://museum.assembly.go.kr>

아이들은 내게

글 정은숙(비사벌유치원 재직)

유혹이었습니다. 이를테면 떨어뜨려내지 못 할, 먹어서는 안 되는 작은 알약 같은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눈물마저 호강이었던 춤고 시리던 젊은 날, 빛을 찾아 나서다 우연히 만난 아이들. 비바람을 막아 준 따스한 우산이었고 안약 한 방울로 내 눈물을 똑 그치게 한 명약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아침이면 아이가 되고 저녁이면 어른이 되어 연둣빛으로 버무려진 서른다섯 해, 닳고 해진 세월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손에 익은 소중한 한 권의 그림책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한 날들은.

젓은 흔적을 끌어안고 간혹 만나는 절망 속에서 약간의 기쁨이라 여겼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그 사이 책장을 넘길 때마다 예기치 않게 형형색색 피어났던 꽃 같은 기쁨이 주렁 주렁, 한 광주리가 훨씬 넘습니다.

삼백육십오일, 같은 날 같은 웃음일지라도 판도라 상자 속 보물은 날마다 다른 색깔의 보물입니다. 한 아이와 결정적 눈 맞춤으로 단박에 반했던 세월의 뒷모습을 눈물겹도록 사랑합니다.

티 한 점 없는 아이들 앞에 서면 나도 다섯 살 아이가 되어 허락도 없이 그들 마음속을 수시로 넘나들었던 팝콘처럼 유쾌한 날들이었습니다.

아이들과 걸어온 꿈같은 반평생도 넘는 날들은 어찌면 남은 날 전부와도 견줄 수 없는 꽃길이었습니니다.





어려운 화음을 서툰 손끝으로 가만가만 짚다 보니 어느 새 악보 없이도 아이들의 숨결을 노래 하게 되었으니 이만하면 잘 왔다 싶습니다. 깊은 바다까지 훤히 보이는 맑은 기쁨이 사방에 넘실 거립니다.

기적 같은 하루가 탱글탱글 영글어 갑니다. 아이들이 나를 위해 노래하며 한 줌 사랑이 되어 준 것처럼 이제 내가 아이들을 위해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어야 할 차례입니다. 겸손히 받기만 했던 감사의 노래를 백 번 천 번이라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작고 여린 손을 잡고서 키 큰 친구가 되어 흥겨운 춤도 맘껏 출 수 있고 가슴 속 문을 기꺼이 열고서 희망의 불꽃에 심지를 돌울 수도 있습니다. 작은 가슴마다 들려오는 설렘의 소리에 그 이상의 너그러움으로 귀 기울여 들어줄 수 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이들은 약속을 저버리는 일도 없고 어쩌면 약속의 땅을 향해 걷게 하는 신뢰로 가게 하는 안내자입니다. 감사로 침묵을 달래주며 새로운 방식으로 아프지 않게 다치지 않게 말할 줄 아는 키 작은 선생님입니다. 아이들은 내게.

동그란 얼굴에 눈웃음이 유독 예쁜 아이가 가슴팍으로 와락 달려듭니다. 뽕송뽕송 숨털이 간 지럽게 와 닿습니다. 아이 뺨에 가만히 얼굴을 대봅니다. 레몬처럼 새콤하고 푸른 향기가 묻어납니다.

“선생님 사랑해요.” 유혹 같은 그 한마디, 숨 막히는 가슴 벅찬 순간입니다. 한 개의 기쁨이 열 개의 슬픔을 흰 눈처럼 스르르 녹게 합니다. 천만 가지 달콤한 속삭임에 앞마당 보랏빛 썩부쟁이 환히 웃습니다.

푸른 소나무 한 그루, 그 나무 아래서 곱게 다림질한 아이들 웃음소리, 한 움큼 톱 따서 입에 물었습니다. 아, 싱그러운 솔 향 맛. 꿈꾸듯 아이들 얼굴이 소복이 피어납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아름답고 이제 나만 더 아름답게 살기를, 아니 살아 내기를 꿈꾸면 그만입니다. 오늘도 아이들에게로 향하는 달콤한 아침입니다.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나에게

글 이인수(용화여자고등학교 재직)

★ 오늘,
다시 없을 시간이다.
나는 잠시 머물러 있을 뿐.

오롯이 집중하고 싶다.
지금의 나에게, 나의 마음에.

내일,
오늘이 가면 곧 뒤따라 올 시간이다.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궁금하다.

오늘의 나는
내일의 나에게 희망을 건다.

적어도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아지길.
내일은 오늘 내가 간절히 바라던 그 모습이길.

그리고

오늘과 내일 모두
행복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가득 담아
누군가에게 전해지길.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나에게. 



붉은 장미

글 최상경(순천효산고등학교 퇴임)

이 봄 저 봄 다 보내고
 몇 발자국 뒤따른
 가시덤불 헤치고 난 꽃 한 송이
 그 환희 속에서 가시를 본다

이 꽃 저 꽃 다 피우고
 수백만 송이 꽃 속에 숨은
 영성하게 이빨 드러낸 욕심 하나
 그 찢림 속에서 장미를 본다

못난 가시 품은 가슴만큼
 몇 번이고 찢렸을 붉은 장미
 그래서 더 붉은 거다
 그래서 더 사랑스러운 거다

누구라도 아픔 하나씩 품고 살듯
 못다 핀 가시도 마다하지 않고 웃는 네가 좋다 🍷

칼칼한 밥도둑

갈치조림

글 김민정



자작하고 갈갈한 조림을
먹고 싶은 날이 있다.
그럴 때 많은 사람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다름 아닌 갈치조림.
국물이 잘 스며든 무를 밥에 비벼
살코기 한 점 없어 먹다 보면
그 감칠맛에 저절로 밥 한 공기를
더 먹게 된다. 만드는 방법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의외로 초보자들도
쉽게 만들 수 있다. 누구나 금방 따라
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하게
갈치조림 만드는 법을 소개한다.



주 재료

갈치 6토막, 다시마 5장, 토막 무(10cm),
대파 1대, 청양고추 2~3개

양념 재료

진간장 6큰 술, 고춧가루 2큰 술,
다진 마늘 1큰 술, 다진 생강 1/2큰 술,
맛술 2큰 술, 설탕 1큰 술,
올리고당 1큰 술, 후춧가루 약간

만드는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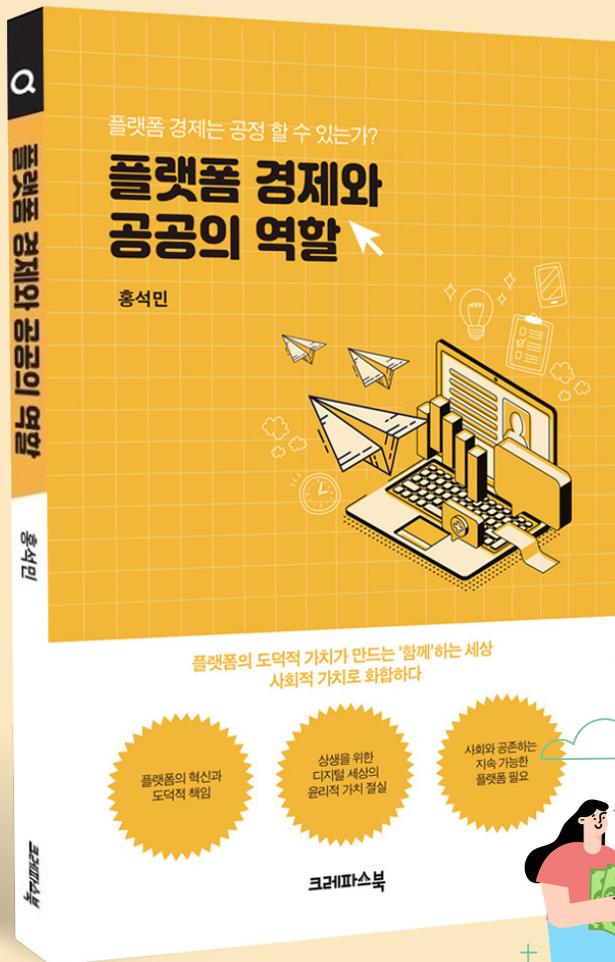
1. 진간장, 고춧가루, 다진 마늘, 다진 생강, 맛술, 설탕, 올리고당, 후춧가루를 섞어 양념장을 만든다.
2. 무를 반달 모양으로 자른다.
3. 냄비에 물 3컵, 잘라둔 무, 다시마를 넣고 끓인다.
4. 물이 끓어오르면 다시마를 빼고 갈치와 양념장을 넣는다.
5. 뚜껑을 닫고 중불에서 서서히 끓인다.
6. 국물이 반쯤 줄어들면 대파와 청양고추를 넣는다.
7. 국물을 갈치에 끼얹으며 자작하게 졸인다. 



플랫폼 경제는 공정할 수 있는가?

책 <플랫폼 경제와 공공의 역할>

제공 크레파스북



*본 도서는 '크레파스북'에서 협찬 받은 도서로 이벤트를 통해 5분께 증정합니다.

플랫폼 성공신화에 감춰진 비밀 유연한 대응과 규제가 필요하다



우리는 초연결 사회(Hyper-connected Society)에 살고 있다. 우리가 하루에도 수차례 사용하는 인터넷을 비롯해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IoT(Internet of Things, 사물 인터넷) 등이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 등을 연결해준다.

초연결 사회의 핵심은 데이터다. 데이터를 생산하는 노동은 어느 때보다 사회적이며 그렇게 생산된 데이터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다. 불특정 다수의 개인이 생산한 데이터를 조직에서 자본으로 활용하는 데이터 경제가 지속되려면 조직은 필연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작은 나라에서 토종 플랫폼이 살아남고 매년 다이내믹한 스타트업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은 고무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사업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규제와의 싸움, 기존 산업계와의 마찰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사업과 서비스 자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창업가와 스타트업은 드물다. 플랫폼 경제에서 시민의 저항은 산업혁명 시대의 노동운동처럼 날로 심해지는 불평등과 양극화로 인해 더욱더 조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창업가와 스타트업은 기존 산업과 이해관계자들을

서로 존중하며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사업을 전개해야만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고 지속 가능한 사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사회 공동체에 대한 기본적 숙고와 공감대 없이 만들어진 스타트업의 신규 서비스들은 기존 산업과의 분쟁을 유발해 결과적으로 스타트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만을 강화할 뿐이다.

과거 산업혁명 이후 자유방임주의 경제정책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삶이 비참해진 것과 마찬가지로 플랫폼 경제의 과열이 플랫폼 노동자들을 곤경에 빠뜨리고 있다.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이나 서비스가 모든 것에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스타트업과 창업가는 도구적 기술의 필수 조건인 윤리적 문제의 해결과 사회적 가치의 추구를 위해 심도 있는 통찰과 관심을 통해 우리 공동체와 상생 할 수 있는 신생기업의 성장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제 진정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주체가 되고 공유, 공생, 지속가능성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더욱더 추구해야 하는 시점이다. [f11](#)

지은이 홍석민
출판사 크레파스북
발행일 2022년 12월 12일

정가 15,000원
ISBN 979-11-89586-55-3(93370)



올바른 지구를 위한 올바른 재활용 방법



요즘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지구의 환경을 지켜야 하는 것은 모두가 알지만, 막상 실천에 나서려니 막막하기도 하다. 여기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지구의 환경을 지키는 방법이 있다.

바로 재활용이다. 하지만 재활용도 올바르게 해야 의미가 있다.

이 글을 통해 올바른 재활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종이류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흘날리지 않도록 끈 등으로 묶어서 배출
책자, 노트	• 스프링 등 종이류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종이컵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상자류	• 테이프 등 종이류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비닐코팅이 되어있거나 금박, 은박지, 벽지, 자석 전단지 등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종량제봉투로 배출



고철류

고철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배출
비철금속	• 금속 이외의 재질(천, 고무, 플라스틱 등)이 부착된 물품은 재질별로 분리가 곤란한 경우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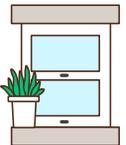
의류 및 원단류

면의류 기타 의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 • 전용수거함이 없는 문전수거 지역 등에서는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동·식물성 섬유 합성섬유류	



종이팩

살균팩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멸균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일반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유리병

음료수병 기타병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꽂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

※ 깨진 유리제품은 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 배출
 ※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금속캔

음료·주류캔 식료품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꽂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기타캔류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합성수지류

PET,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 제거하여 배출 •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흠날리지 않도록 봉투에 담아 배출
스티로폼 완충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음식물류 폐기물

- 물기를 꼭 짜서 최대한 수분을 제거한 후 배출
- 일회용 비닐봉지,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등 음식물쓰레기 외의 이물질은 제거
- 길이가 긴 채소류와 덩어리가 큰 수박 등은 잘게 썰어 부피를 줄여서 배출
- 배출요일 및 배출시간을 지켜 배출

※ 수분이 적고 딱딱해서 재활용하기 어려운 것(핵과류의 씨, 껍데기, 뼈 등)이나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것(티백, 한약재), 유해한 것(복어 내장)은 쓰레기종량제 봉투로 배출한다.

재활용품 대부분은 최대한 깨끗이 씻어서 이물질 없이 배출하는 것이 좋다. 십시일반이라는 말이 있다. 여러 사람이 조금씩 힘을 합하면 한 사람을 돕기 쉽다는 말이다. 환경 보전은 그리 거창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한 사람마다 조금씩만 더 신경 쓰는 것이 더 깨끗하고 푸른 지구 환경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출처: 재활용품 분리배출 가이드라인, 환경부

내가 좋아서 사는 건데 뭐가 나빠? 디깅 소비 알아보기

내가 좋아서 파는 사람들, 디깅러



자신의 취향을 찾아 그 영역에 깊이 파고든다는 의미로 쓰이는 ‘디깅(Digging)’. 음악이나 취미는 물론이고 소비 영역까지 나아간 디깅은 오늘날 ‘디깅 소비’라는 단어까지 만들어냈다. 원하는 분야라면 망설이지 않고 지갑을 여는 디깅 소비에 대해 알아보자. 

글 김민정

요즘 떠오르는 디깅 소비 분야



“이게 이번 시즌 한정판 운동화라 한국에도 많이 없는 거야.”



“책상 위에 놓을 물건들을 전부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 상품으로 바꿨어!”



“이 스티커 하나 얻으려고 빵을 몇 개씩 샀는지 몰라. SNS에 자랑해야지~”



“집에서 마시려고 구매하기 시작한 위스키가 벌써 이만큼이나 모였네.”

디깅 소비 이전의 트렌드



“가성비만 따지는 건 이제 지쳤어. 조금 비싸도 내 마음에 드는 걸로 살 거야!”



“이번 기회에 전부 끊어버렸지 뭐야~ 내가 이 정도로 능력이 되는 걸 어찌겠어.”

매일밤 다짐하는

‘갓생’ 살기



최근 2030세대를 중심으로 일명 ‘갓생 살기’가 유행이다.

갓생은 신을 의미하는 ‘God’과 인생을 뜻하는 ‘생’의 합성어로 부지런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삶을 뜻하는 신조어이다.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을지 늘 고민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일과를 아래 대화를 통해 알아보자. [tv](#)



글 유민지



#갓생



언니 오늘도 아침에 운동 다녀왔어?

응! 당연하지. 나 요즘 '갓생' 살고 있잖아~



무슨 바람이 불어서 갓생을 살고 계신대? 우리 베패장이 언니가~

스스로가 나태해진 기분이 들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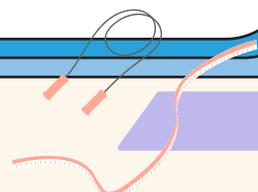
어때? '갓생' 살기 안 힘들어?

응. 오히려 하루를 알차게 보내서 뿌듯하고 성취감도 있어!
너도 한번 해봐!



안 그래도 외국어를 하나 배우고 싶어서
학원에 상담 예약했어!
시간 될 때 자격증이라도 하나 더 취득해두면 좋을 거 같아서!

오~ 우리 좀 멋있잖아!
'갓생'이 생활루틴이 될 때까지 힘내보자고~



연금소득 과세제도 및 소득·세액공제 신고 안내

연금소득 과세 제도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재직 중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납부한 부담금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퇴직 후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을 말함. <소득세법 제51조의3>

매월 연금지급 시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액(소득세+지방세) 원천징수
 (소득세법 143조의2(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 제2항[별표3])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제출
 (소득세법 제143조의6(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의2서식])
 공단에 최초 신고 이후 부양가족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 연도 1월 연말정산 실시 <소득세법 143조의 4(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과세대상 연금소득에서 연금소득공제 및 인적(기본·추가)공제를 적용한 후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자녀세액공제 및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한 결정세액과 이미 납부 한 원천징수세액 비교
 - 과세기간 다음 연도 1월 연금 지급 시 차감징수세액 정산(차감 또는 환급)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 신고 안내

1.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 신고 대상자(신규 및 변동 발생 시 신고)

- 2002.1.1 이후 퇴직한 퇴직연금 수급자
- 단, 유족연금 및 장해연금 등은 비과세 소득으로 신고 제외

2. 연금소득 연말정산 소득·세액 공제 요건 <소득세법 제50조, 제51조, 제59조의2, 제59조의4 제9항>

공제구분	공제요건	공제금액	증빙서류
본인공제	소득자 본인	150만 원	없음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법률혼)	150만 원	
기본공제	부양가족공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직계존속(만 60세 이상) -직계비속(만 20세 이하) -형제자매(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수급자 -해당과제기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 부양가족 중 장애인은 연령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당해연도 이혼한 배우자는 공제 대상 제외 ※ 사위 혹은 며느리는 적용하지 않음. 단,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만 적용 ※ 당해연도 중 사망하거나 출생하면 공제대상자에 해당됨. ※ 직계존속이 해외에 거주할 경우 공제대상자에 제외됨. ※ 기본공제는 다른 소득자(근로소득자 등)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음	1인당 150만 원
		주인등록등본 또는 주소지를 달리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신청하신 경우 주민등록등본은 생략 가능 ※ 해당자 추가제출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등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공제구분		공제조건	공제금액	증빙서류
추 가 공 제	경로우대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1인당 100만 원	
	장애인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1인당 200만 원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수첩, 복지카드 사본
		기본공제 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고엽제후유증 환자포함)		국가유공자 확인원 또는 상이자증명서 사본
	기본공제 대상자 중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의료기관발급)		
부녀자	소득자 본인이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인 여성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배우자가 있는 여성 -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	50만 원		
한 부모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 부녀자공제와 중복될 때 한부모공제만 가능	100만 원		

공제구분		공제조건	공제금액	증빙서류
세 액 공 제	자녀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 8세 이상 (입양자및 위탁아동을 포함) ※ 손자녀는 제외 ※ 장애자녀는 만 20세 이상도 가능 ※ 아동수당을 받는 만 8세 미만 자녀 제외('19.1.10이후)	1명 : 15만 원 2명 : 30만 원 3명 이상 : 30만 원+2인 초과 자녀 1인당 30만 원	
	출산·입양	당해연도에 출산·입양자녀가 있을 경우	첫째 자녀 : 30만 원 둘째 자녀 : 50만 원 셋째 자녀 이상 : 70만 원	입양사실확인서 또는 입양증명서
	표준세액공제	특별공제의 대응 개념이므로 거주자 무조건 기본적으로 공제 적용	7만 원	없음

- 연간 소득은 이자 및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말함
- 기본공제자가 당해연도 이전에 사망하거나 장애에서 치유된 경우 소득·세액 공제 취소 신고를 하여야 함.
- 비거주자는 인적(기본·추가)공제 중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음. <소득세법 제122조>

3.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 방법

| 1. 기신고내역 확인 방법 |

- 사학연금홈페이지(www.tp.or.kr) - 로그인 - 연금 서비스 - 연금수급자 -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출력 (연말정산 시 신고한 기본공제 등 확인 가능)
- 사학연금홈페이지 - 로그인 - 연금서비스 - 연금 수급자 - 연말정산(소득공제)신고 - 기록 소득·세액공제대상자 내역 (조회 시점에 등재된 기본공제 등 확인 가능)

| 2. 서면 제출 또는 홈페이지 이용 |

- 인터넷신고 : 사학연금홈페이지 - 로그인 - 연금 서비스 - 연금수급자 - 연말정산(소득공제)신고
- 우편, Fax, 메일 신고 : 사학연금홈페이지 - 서식 자료실 - 별지 제37호의 2서식(작성)
우편) 58326, 전남 나주시 문화로 245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연금수급자팀
Fax) 02-2070-1120 메일) smile@tp.or.kr
[문의사항] ☎ 1588-4110 (고객센터)

**이벤트는 월간 <사학연금>
웹진에서
더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웹진에서만 즐기는 이벤트!

- ① 알쏭달쏭 빈칸 퀴즈에 참여해주세요.
- ② 월간 <사학연금>의 칼럼을 읽고 감상평을 보내주세요.

참여방법: 웹진 접속 후 메인 하단 EVENT 코너 클릭!

참여기간: 2023년 7월 7일(금)까지



월간 <사학연금>은 독자들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7월 7일 마감)

코너명	코너 소개	응모 방법	독자 선물
만남 (인터뷰)	월별 테마에 맞는 사학가족을 찾습니다. 8월호 테마-윌리엄 컬런 8월은 어떤 때보다도 열음을 많이 찾게 되는 계절입니다. 지금은 흔히 먹는 열음이지만 과거에는 부의 상징이었던 열음. 인공 열음을 최초로 만든 건 270여 년 전 영국의 과학자이자 의사 '윌리엄 컬런'이었습니다. 이처럼 과학과 의학에 관심 있는 사학가족을 소개해주세요.	추천 인물과 이유를 연락처와 함께 웹진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사진 인화 및 탁상용 액자
짓다	사학가족이 직접 쓴 시 또는 수필을 소개합니다. *내용과 주제는 자유	한글 파일 형태로 원고지 10매 이내 (10포인트 기준 A4 1장)로 작성하여 웹진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문화상품권 (모바일)
인생 책	추천 도서를 소개합니다. 해당 도서를 읽으면 좋을 만한 사학가족을 추천해주세요. 해당 도서를 보내드립니다.	추천 인물과 이유를 연락처와 함께 웹진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도서
웹진 이벤트	1. 빈칸 채우기 2. 독자의견	웹진에서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스타벅스 커피 기프트콘

**이벤트
참여 방법**

🌐 이메일 magazine@tp.or.kr

*독자 선물 제공에 필요한 성함, 생년월일, 연락처를 꼭 적어주세요.
*선물 발송일: 해당 월(기과 글이 게재된 달) <사학연금> 발행 후 15일 이내로 발송됩니다.

응모기간
2023년
7월 7일(금)

펼칠하는 곳

항상 저희 「사학연금지」 발간에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사학연금지」는 1984년 창간 이래 40년 동안 사학연금 수급자에게 무료로 발간되고 있으며, 연금지 제작·발행은 사학연금 고객의 서비스 일환으로 연금기금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하여 저희 공단에서는 매년 어려운 여건 아래에서도 「사학연금지」 제작·발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매년 축소되는 정부의 예산과 상승하는 물가인상 등으로 인하여 매월 발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희 공단에서는 「사학연금지」의 제작 방향을 월간에서 격월로 전환하고, **구독수수료** 납부에 대하여 구독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설문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단의 「사학연금지」가 지속적으로 발간되고 또한 유익한 정보 뿐만 아니라 독자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명실상부한 사학연금 소식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독자설문엽서

보내는 사람

주소



받는 사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전남 나주시 문화로 245 (빛가람동)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홍보팀

Email : magazine@tp.or.kr FAX : 02-2070-3025



사학연금 제휴 서비스 안내



사학연금 회원 및 임직원 전용 혜택 제주항공 기업우대서비스

국내/국제선 항공운임 2% 할인 상시 할인

- 적용 기간 : 상시 · 적용 노선 : 국내, 국제선 전 노선
- 가입/혜택 대상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회원 및 임직원

혜택 이용 방법



STEP1.
제주항공 홈페이지 내
기업우대 임직원 가입하기



STEP2.
항공권 결제 시 회원할인
기업우대 할인 선택



STEP3.
임직원 가족도 동일한
방법으로 혜택 적용



* 사학연금 홈페이지 내 기업우대서비스 기업 코드 참조

JEJUair

“
에어부산 기업우대 프로그램
사학연금 가입자 대상 내륙노선 항공 할인 지원



사학연금 기업회원으로 등록된 교직원 및 그 가족 여러분께 김포 ↔ 부산 구간의 항공운임 할인을 지원해드립니다.

지원내용상세

- 1 서울(김포) ↔ 부산 구간 항공료 5% 추가할인
※ 주중·주말·비수기·성수기 무관, 실시간 할인이 반영된 항공료에 추가할인 5% 제공
- 2 항공편의 편리한 이용을 위한 여정변경 수수료 면제
- 노선 : 서울(김포) ↔ 부산
- 내용 : 항공권 여정변경시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3,000원~12,000원) 면제

지원대상

에어부산 개인회원 중 '사학연금' 기업회원으로 등록된 사학교직원 및 그 가족

가입및이용절차



Contact

에어부산 국내영업팀 김태영 대리님: kty@airbusan.com

사학연금(TEACHERS' PENSION) QR코드 안내



웹진



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알림톡

알림톡을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소식을 빠르게 접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연금dream 콜센터 전국 어디서나 1588-4110

본사(나주)

(58326)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45 (빛가람동)

☎ 061) 338-0000

서울센터

(073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7층
(여의도동, 전경련회관)

☎ 02) 769-4403~4, 4408

대전센터

(35209)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809 사학연금회관
14층 (둔산동)

☎ 042) 538-2371~2375

부산센터

(4735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일로 181
사학연금회관, 7층 (범천동)

☎ 051) 637-6013, 6015~6017

서울 · 대전 · 부산센터에서는 근로자 휴게시간 보장을 통한 양질의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 (12:00 ~ 13:00)를 운영하고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